

붙임 1	우수사례
-------------	-------------

분야	☒ 참여·소통 혁신	☐ 기본사회 혁신	☐ 행정 혁신
사례명	교통비 반값, 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전국 최초 352만 초광역 생활권 통합교통복지 모델 구축		
제출기관/부서	대구광역시 교통국 버스운영과		

□ 추진배경

- (주민 이동권 제약 및 교통복지 불균형) 대구·경북은 행정·경제·생활권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에도, 지자체별로 교통체계와 요금제도가 분리 운영되어 주민이동권이 제약 받음. '09년 대구·경산 광역환승제를 시작으로 일부 지역은 환승혜택을 받았지만, 김천·구미·성주 등 경북권 다수 지역은 여전히 교통비 부담과 환승 불편이 지속되는 **교통복지 불균형 문제 발생**
- (대경선 개통에 따른 광역교통 확대) '24년 12월 대경선 개통을 계기로 대구와 경북 9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광역환승제 확대를 추진하여 대구를 중심으로 352만명의 거대 생활교통권을 형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국 최초 초광역 통합정산·운영체계 구축) 대구·경북 9개 지자체, 대구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교통카드 정산사가 참여하는 통합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광역권 단위 일괄 정산체계 구현
- (시민 이동패턴 기반 맞춤형 광역환승체계 설계) 도시철도·버스·광역 철도 간 실제 이동데이터를 분석하여 「하차 후 30분 이내, 최대 2회 환승」 제도를 도입하고, 경북권은 60분까지 확대 적용하여 이용 편의성 강화
-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반 이용환경 통일) 어느지역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카드 사용 의무화

- (광역환승과 교통복지를 결합한 통합 서비스 구축) 광역환승 확대와 연계하여 대구·경북 간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상호이용을 시행함으로써 「환승+무임」의 전국 최초 초광역 교통복지 모델 구현
- (전국 유일 특허 기반 복지카드 부정사용 차단 시스템 구축) 주민등록 전산망 연계, 실시간 자격검증, 자동 정산기능을 구현한 「무임교통카드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특허 등록, 행정통합 없이 전산 통합을 실현하여 18개 지자체가 공동 활용 가능한 전국 확산형 운영모델 마련

□ 추진경과

- (2019년) 광역환승제 출발점 마련
 - 8월, 대구-경산-영천 간 무료환승제 시행⇒광역환승제 기반 조성
 - 12월, 대구생활권 교통협의회 구성⇒광역교통체계 논의 공식화
- (2020~2022년) 제도 설계 및 협의 기반 구축
 - '21.8월~'22.12월,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검토 용역 수행
⇒ '무료환승제' + '광역철도 정액할인제' 도입 방향
- (2023년) 통합요금제, 무료환승 + 철도정액할인, 균등정산(1/N)방식 합의
 - 1월, 경북도 8개 지자체 동의, 공동 시행 의지 확립
 - 8월, 9개 지자체 협의 결과 확정
- (2024년) 제도 확정 및 제도화 단계
 - 2월, 요금체계 확정(일반 1,500원/청소년 850원/어린이 400원)
 - 5월, 9개 지자체·38개 운송기관·철도공사 협약 체결(MOU)
 - 8월, 경북지자체를 대상으로 대구형 어르신 무임사업설명회 개최
 - 11월, 대구와 경북17개 지자체 어르신 시스템 관련 협약체결(MOU)
 - 12월, 대구·경북 8개 지자체 광역환승제 본격 시행
- (2025년) 통합교통 복지체계 완성

- 6월, 대구·경북 간 어르신 무임 상호이용 정산 협약 체결(MOU)
 - 7월,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상호이용제' 본격 시행
 - 11월, 특허등록, 전국 유일 복지카드 부정사용차단 시스템
- (2026년) 대구· 경북 사업관련 담당자 업무연찬 2회 실시



□ 추진성과



- (교통비 최대 50% 절감) 버스-철도-버스 이동 기준 4,500원 → 2,250원 절감, 약 50% 경감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교통량 증가 : 시행 6개월 만에 통행량 11만 건 증가, 환승 건수 10% 이상 증가
- (352만 명 총광역 생활권 실현) : 대구·경북 9개 지자체를 하나의 환승권역으로 통합, 광역환승 혜택을 경북권 77만 명까지 확대

- (전국최초, 초광역 교통복지 구현) 9개 지자체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상호이용 시행, 대구↔경북 간 어르신 광역 이동 423만 건 달성 ('25.7월 ~ '26.5월 : 대구→경북 165만 건, 경북→대구 257만 건)



- (재정절감 및 행정효율화) 경북 어르신 시스템 개발비 60억 원 절감, 연간 운영비 16억 원 절감
- (전국 유일 특허 기반 복지카드 부정사용 차단 시스템 구축) 복지카드 부정사용 방지효과 연간 20억 원 창출

특허명칭

「무임교통카드의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특허(제10-2891378호)

- (광역철도 연계 완전환승 실현) 대경선 개통과 동시에 버스-철도-버스 간 통합 환승체계 구축, 전국 최대 규모 광역교통 네트워크 완성

□ 향후계획 및 기대성과 등

- 광역환승 이용데이터를 활용한 수요 맞춤형 광역교통 정책 추진
- 광역환승 운영 경험과 어르신 무임사업 전산통합 기술을 체계화 하여 전국 확산이 가능한 초광역 교통·복지 표준모델 구축
 - ※ 서울, 인천, 부산, 대전, 울산, 충북, 충남 등 전국 주요 지자체 벤치마킹
- 지자체 간 협업과 전산통합을 기반으로 교통·복지·행정을 연계한 초광역 협력정책 확산
-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는 대한민국 대표 초광역 교통혁신 모델로 정착

붙임 2 우수사례 주요내용

1 참여·소통 혁신 분야

분야 1. 참여·소통 혁신			
연번	기관명	사례명	주요내용
1	대구광역시	교통비 반값, 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 전국 최대 규모 광역환승체계 구축 ○ 광역철도(대경선) 연계 통합요금·환승서비스 도입 ○ 9개 지자체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상호이용 시행 ○ 특허 기반 전산통합 교통복지 시스템 개발 ○ 9개 지자체·38개 운송기관 협업 거버넌스 구축 ○ 행정구역 경계를 허문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구현